





경기지원 한윤희 안성 출장소장

고객홍보팀

전국에서 소, 돼지를 합하여 등급판정 두수가 최고로 많은
작업장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도드람LPC공판장이다.
이곳에 이번호 주인공인 한윤희 출장소장이 근무하고 있다.
도드람LPC공판장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지원 안성 출장소는
소·돼지작업장 2곳과 계란집하장 4곳,
꿀등급판정 시범사업 2곳을 관할하고 있다.
한윤희 출장소장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한 한윤희 출장소장은 축평원에서 2개월간의
현장실습을 했던 인연으로 당시 등급판정사를 뽑는다는 모집공고 소식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입사를 지원했다고 한다. 91년에 입사한 그는 어느덧
근무경력 26년차, 도드람LPC공판장 근무경력은 합산5년이다. 공판장에서
근무하다보면 등급판정에 따라 경력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불만 농가들의
민원이 비일비재하다. 한윤희 출장소장은 “전에는 막무가내인 민원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등급판정 규정과 농가들에 대한 교육으로 전보다는 민원이
줄었다. 간혹 힘들게 하는 민원들이 있어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일이라는게
녹록치는 않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민원인들을 설득하는 것도 보람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직무교육 우수상을 표창한 이력이 있다. 그에게 우수직원상을
받은 소감을 물으니 “나 혼자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니다. 경기지원 직원 모두가
노력하여 받은 상으로 직원들에게 공을 돌린다.”며 겸손하게 말했다. 그는
2012년부터 5년간 경기지원 소·돼지고기 부문 전문강사로 활동하였고,
도드람LPC공판장에서 근무하면서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서 고급육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농가 컨설팅을 활성화하여
한우사육 농가에 큰 보탬이 되었다. 우수직원상은 한윤희 출장소장의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다.



2012년부터 5년간 경기지원

소·돼지고기 부문 전문강사로 활동하였고,

도드람LPC공관장에서 근무하면서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서 고급육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농가 컨설팅을 활성화하여

한우사육 농가에 큰 보탬이 되었다.

그의 부모님은 소농장을 운영하는 축산인이었다. 항상 소를 보면서 자라서인지 대학졸업 후 가업을 이어받아 한우농장을 운영하고 싶었으나 부모님은 대학까지 나온 아들이 농장일을 한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그는 여전히 푸른 초원 위에 한우농장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등급판정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노후에는 축평원에서 근무한 경력과 축산지식을 바탕으로 한우농장을 운영하고 한우작목반 활동을 통해 농가에 재능기부하며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